

北 장거리로켓 전격발사

‘광명성 3호’ 궤도진입 성공...사거리 1만3천km 추정

李대통령 긴급안전보장회의, 美·中 등 규탄 성명

북한이 12일 국제사회의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맞서 주요국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18대 대선을 꼭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전격 발사하면서 대선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오전 9시49분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로켓의 1, 2, 3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돼 탑재물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5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 2, 3단 추진체는 정상 작동했다”며 “한미 군사당국은 탑재물(북한 주장 광명성3호 위성)이 일단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장거리 로켓은 9시52분께 1단 추진체가 분리된 뒤 53분께 백령도 상공을 통과했고 58분에는 오키나와 서쪽을 통과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발사 1시간 30분만에 “광명성 3호” 2

북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지점 낙하



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된 ‘은하3호’ 로켓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하면 사거리가 1만3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가 사실상 ICBM 실험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뒤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연쇄 접촉을 벌이며 대응책 협의에 나섰다.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국지도발 대비 경계태세인 ‘진돗개’를 ‘물’로 상황 조정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로켓 발사 전날까지 북한이 로켓을 내려놓고 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정부와 군의 정보력이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구로 13일 오전 1시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주역 광장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집중유세에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 3022명 대선 여론조사 ▶ 3면 조사결과와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박근혜 46.3% 문재인 40.3%

安지지층 63% 文, 21.6% 박으로

서울 文 44.5%로 2.7%차 박 앞서

선택 2012 대선 D-6

18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직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를 격차하는 오차범위(±1.8%)를 겨우 넘어서는 6.0%포인트에 그쳐, 남은 기간 여론 흐름과 투표율 등에 따라 대선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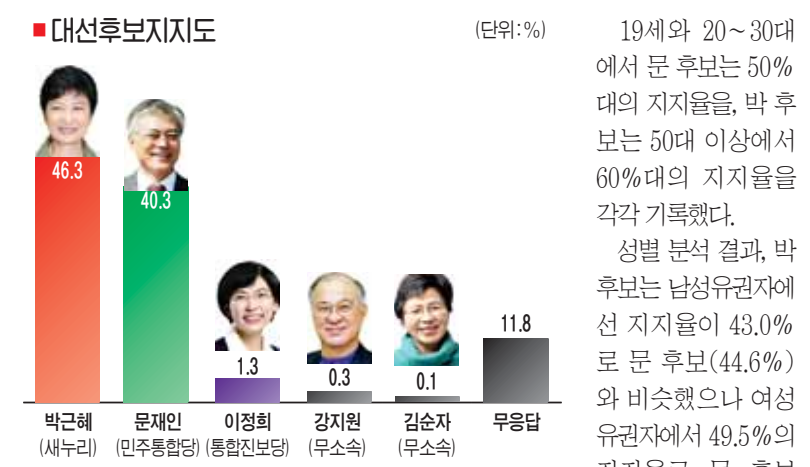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협)가 한국 갤럽에 의뢰, 지난 11일 전국 19세 성인남녀 3022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6.3%의 지지율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40.3%)에 비해 6.0%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동안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지지율 격차 4.9%포인트(박근혜 45.3%-문재인 40.4%)에 비해 조금 더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지지율은 0.2%에서 1.3%로 높아졌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지지자의 63.0%는 문 후보 지지로, 21.6%는 박 후보 지지로 각각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및 세대별 격차도 여전했다. 문 후보는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 70.6%(광주 77%, 전남 71%, 전북 65.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박 후보는 14.3%(광주 14.



19세와 20~30대에서 문 후보는 50%대의 지지율을, 박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60%대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성별 분석 결과, 박 후보는 남성유권자에서 지지율이 43.0%로 문 후보(44.6%)와 비슷했으나 여성 유권자에서 49.5%의 지지율로 문 후보(36.1%)에게 13.4%포인트 앞섰다. 당선 예상 후보로는 49.1%가 박 후보를, 25.7%가 문 후보를 각각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8.4%, 민주통합당 30.9%, 통합진보당 2.3% 등이고 무당파는 26.9%였다. 이번 조사는 RDD(임의전화결기) 방식을 이용한 집 전화 및 휴대전화 결합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8%포인트(호남 ±6.1%포인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일 대선 투표일 포근한 날씨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19일은 평년에 비해 춥지 않을 것으로 보여 투표율 등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의 찬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동쪽으로 치우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온은 광주가 0~8도, 목포는 1~7도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6도~영하 2도, 최고기온 6~9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대선 투표일 기온과 선거 결

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추운 날은 보수 후보가, 포근한 날에는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2월 19일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뽑힌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석사과정(아간): 광주반, 여수반
일반전형('12.12.19까지 접수)
최고정책과정 관리지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http://cnugpa.kr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시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진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화교면 국광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